

문서 초안, 이제 한 번에 설계합니다

보고서, 카드뉴스, PPT, 1분 숏폼.
같은 내용을 매번 다시 쓰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초안을 만듭니다.

Codex는 쉬운 AI 작업 도우미입니다



파일을 모아 두고 요청하면
검토 가능한 초안을 함께 만들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사용법입니다.

실제로 만든 작업 패키지



공모전 안내, 디자인 기준, 사업 맥락,
보고서 원고를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4종 초안을 같은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내용을 계속 다시 쓰는 일

보고서

카드뉴스

PPT

숏폼

보고서는 길게, 카드뉴스는 짧게,
PPT는 발표용으로, 영상은 60초 안에.
형식이 바뀔 때마다 시간이 반복됩니다.

방법은 4단계면 충분합니다

1

자료

2

기준

3

플랜

4

검토

자료 모으기 → 기준 세우기
플랜 모드로 순서 확인 → 사람이 검토
복잡한 자동화보다 먼저 흐름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하나의 원천 문서가 핵심을 붙잡습니다

먼저 보고서에서 논리를 세웁니다.
그다음 카드뉴스, PPT, 숏폼으로 바꾸면
핵심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찾고, 열고, 미리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Codex와 VS Code를 함께 쓰면
Markdown 원고를 바로 미리보고,
산출물 위치를 한 작업공간에서 확인합니다.

성과는 작업한 시간만 합산했습니다

2시간 36분 34초

누적 작업 시간

4종

산출물 유형:
보고서, ppt, 카드뉴스, 숏폼

약 39분 9초

초안 1종당 평균

대기 시간은 빼고 실제 작업 구간만 더했습니다.
누적 2시간 36분 34초,
초안 1종당 평균 약 39분 9초.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실

숫자

개인정보

제출 조건

AI는 초안을 만드는 수단입니다.
숫자, 사실, 개인정보, 제출 조건은
사람이 마지막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업무가 있는 곳이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융, 건설, 소상공인, 공무원,
공공기관, 교사, 학생, 프리랜서까지.
핵심은 자료를 모으고 초안을 검토하는 습관입니다.